

독립운동가 신흥균 한의사에 대하여

이상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고고학과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Hong-Kyun Shin

LEE Sang-hwa

Dept. of History and Archeology, General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Shin Hong-gyun was born on August 20, 1881. The second son of Shin Tae-geom (申泰儉) in Sangsang-ri, Sinbukcheong-myeon, Bukcheong-gun, Hamgyeongnam-do. His family had been practicing East Asian medicine as a family business. At that time, the families of East Asian doctors who passed the general examination of the Joseon Dynasty had been continuing the East Asian medicine busines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tarting with exile in North Gando in 1911, he was located in Wangga-dong, 17 Doo-gu, Changbaek-hyeon. In 1915, he met General Choi Un-san in Bongo-dong, treated the soldiers suffering from cellulitis, an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rocess to prepare for the upcoming anti-Japanese war. However, because of a growing difference of opinion with General Choi Woon-san, Shin Hong-gyun left Bono-dong after a year and met Sorae Kim Jung-geon and joined the founding of Wonjonggyo and Daejindan, an anti-Japanese armed group.

It is said that Shin Hong-gyun established many schools in Korean villages destroyed by the Gyeongshin disaster and 14 schools were established under the names of Wonjonggyo and Daejin. After the Japanese established the puppet Manchukuo in 1931, the Manchurian Defense Forces were formed. Koreans and Chinese immigrants to Manchuria worked together to carry out a joint Korean-Chinese anti-Japanese operation towards the Japanese Empire. In 1933, 50 of the Daejindan members join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among them, Shin Hong-gyun began to work as a medical doctor in earnest.

During an ambush in Daejeonryeong Valley, he could not get a proper meal and, to make matters worse, got wet in the rainy season, so the situation was a challenge in various ways. At this time, Shin Hong-gyun showed his knowledge of herbal medicine, picked black wood ear mushrooms that grew wild in the mountains, washed them in rain water, and provided food to the independence fighters and relieved them of hunger. After the Battle of Daejeon-ryeong, the Japanese army's suppression of the independence forces intensified, and most of the independence fighters escaped from the Chinese army's encirclement and were scattered. Ahn Tae-jin and others led the remaining units and continued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the forest areas of Yeongan, Aekmok, Mokneung, and Milsan.

Key words : Hongkyun Shin, Choi Unsan, Junggeon Kim, Wonjonggyo, Daejinjin, Battle of Daejeonryeong

I. 서론

일본은 한국의 국호를 조선이라고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일본 내각의 각 부서의 감독없이 조선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뿐만 아니라 육·해군 통솔권까지 권한을 빼앗은 실질적인 전제군주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식민 행정기

구의 뒷받침으로 강력한 군병력을 주둔시키고 특히 악명 높은 일본 헌병대가 각처에 배치되어 1919년까지 약 10년간 일반 사법경찰 노릇까지 하였다.¹⁾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의 색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일체 해산시켰고, 신문·잡지로서는 일본인 경영의 출판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고, 모든 집회는 비정치적인 것까지도 사전허가가 필요했었다.

교육제도는 일본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내세워 새로운 학제를 설립했으며, 공립보통학교, 공립고등보통

접수 ▶ 2022년 11월 14일 수정 ▶ 2022년 11월 22일 채택 ▶ 2022년 11월 23일
교신저자 ▶ 이상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4길 16
Tel : ***-****-**** E-mail : tkdghkfjgm@naver.com

1) 朝鮮史研究會編. 朝鮮の歴史. 東京:三省堂. 1974:200.

학교는 일본인 교장과 다수의 일본인 교사를 두어 일본어 교습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인 교장과 다수의 일본인 교사를 두어 일본어 교습에 역점을 두었다.²⁾

경제시책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를 세운다는 구실로 1910년부터 8년이란 시간을 들여 ‘토지제도조사’ 사업을 벌여 한국의 전통적 관습을 뒤집어 그 결과로 일본인 지주들이 대량의 농지를 침탈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공식적으로 회사령(會士令)을 공포하여 일본의 국책회사는 자본의 진출을 돕고, 한국인의 토지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³⁾

경술국치 이후에도 계속된 의병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국경 넘어 간도지방까지 진출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협력을 거부하는 조선인 지도층 인사들을 105인 사건에 연결지어 조작·탄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을 정복하고 탄압과 착취는 물론이거니와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의업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을사늑약 이후 당시 고문관이던 일본인 의사장이 예고도 없이 서양의학 시험을 보아 이에 낙제했다는 명목으로 우리 의사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광제원에서 축출해 버렸다. 이는 수천 년 동안 민족의 건강을 돌보아 왔던 한의사들이 일본인에 의해 공공의료 부문에서 강제 축출된 중요한 사건이다.⁴⁾ 이에 반발하여 1909년부터 4월경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법 제정 운동을 펼쳤으나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통감부의 의해 강제 해산 되었다.⁵⁾

조선총독부는 1913년에 「의사규칙」과 「의생규칙」을 제정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양의들은 의사규칙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한의사들은 「의생규칙」의 면허를 받고 의생(醫生)으로 불렸다. 한의사들에게 의생 신분으로나마 일정 부분 진료료 허용한 것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당시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근대적인 의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⁶⁾

이에 한의학 연구의 맥을 잇지 못하고 의생 신분을 거부하고 의업을 접었으며, 「의생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통감부는 조선 정통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업자(意業者)로 등록시켰다. 조선총독부는 면허까지 빼앗고, 1914년 이후로는 신규 의생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한의학의 명맥을 끊으려는 일제의 의도를 볼 수 있다.⁷⁾

그 중 몇몇의 한의사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군의관으로서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낸 한의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한의사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의사들은 대한제국군 친위대 군의를 맡을 정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지녔고, 그들의 한의원은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비밀거점이었으며, 다수의 한의사는 약재를 캐기 위하여 주변 마을과 산 주위를 이동하므로 정보수집에 특히 뛰어났다.⁸⁾

만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한 강우규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 망명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에서 이동휘(李東輝) 선생을 만난 뒤 독립운동을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100여 가구가 사는 벽촌을 한민마을로 개척하고 광동학교를 세우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⁹⁾

저항 시인 이육사의 외삼촌이자 한의사였던 허발 선생은 당시 의병장으로 명망이 높았던 허위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에 헌신하면서 독립자금과 군자금을 조달했다. 허위 선생이 순국한 후 만주로 망명한 허발 선생은 자신의 한의원을 독립군 기지로 활용하고, 만주의 한인 교포들에게 군사 훈련을 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¹⁰⁾

마지막으로 신흥균은 독립운동 3대 대첩 중 1933년 6월 경 대전자령 전투에서 군의관으로 활동하면서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고 큰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여 굶주림으로부터

2) 文定昌, 『施政五十二年史』, p. 35-37.

3) 梶村秀樹, 『朝鮮史』, 東京:講談社, 1977:147-148.

4) ‘말모이’와 광제원 축출사건, 2019,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5) 류정아,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고찰」, 제29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8, 출처: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6)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한울출판사, 1997;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 12(2):110-128;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II』,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박윤재, 앞의 책, 2005; 신장건,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2007;76:105-139;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서울:아카넷, 2008;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009;13(1):161-183.

7)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8.

8) 정상규, 신민식, 「신흥균(申洪均: 改名 申屹)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32.

9) 박환, 「姜宇奎의 의열투쟁과 독립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8;55:121-123.

10) 폭탄 던지고 군의로 활약하고...독립운동 속 '한의사' 제조명 KBS 1TV 다큐세상,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 탐구, 한의신문 2020년 2월 3일자, 이복도민작가 이동현,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

해결해주는 역할까지 하였다.

전투 중 폭우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많은 독립군들은 굶주림으로 고초를 겪었다. 신흥군 선생은 매복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검은 식용버섯을 발견해 군량으로 제공하고 이 버섯을 먹고 버틴 한·중연합군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대전자령 전투의 전과를 살펴보면, 일본군 약 130명 정도 살상되고 다수의 병력이 사산·도주하는 치명적 손상을 받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고 막대한 군수품들이 한중연합군에 노획되어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 전리품목은 군복 3천벌, 박격포 5문, 군수물자 20마차, 담요 3천매, 평사포 3문, 소총 1천 5백정 등이었다.¹¹⁾ 더 놀라운 우리 독립군에게는 단 한 명의 전사자가 없었고, 경상자 4~5명 정도에 그치며, 한국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전투라고 볼 수 있다.

대전자령의 전투 승리 가운데 독립군 군의관 신흥군의 본초지식이 없었더라면 한·중연합군의 독립운동 행보는 막막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신흥군의 행보에 대해 알아본다.

II. 본론

1. 1911년 북간도 망명

신흥군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한의업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가, 1911년이 되자 4000천여 평 정도 되는 토지를 종손에게 위탁하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북간도 지방 봉천성(奉天城) 장백현(長白縣) 17도구에 王哥洞(왕가동) 三浦(삼포)로 이주했다.

장백현은 압록강 상류지역으로 국내의 혜산진(惠山鎭), 삼수(三水), 갑산(甲山)으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로 백두산(白頭山) 남쪽 기슭과 이어졌다. 겨울에는 차가운 한기로

인해 영하 40도~5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갑산군에서 압록강 상류를 건너 장백에 들어가는 길과, 백두산의 서록(西麓) 밀림 속을 통과하여 일단 무송현 만강(漫江) 부근에 거쳐 간 두 길은 모두 겨울에는 한기가 강한데다가 적설이 깊어서 매년 9월 중순부터 4월 말경까지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며, 동사(凍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¹²⁾

압록강을 사이로 북녘땅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한 말부터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흉년으로 인한 생활고를 피해 이주해 온 한국인들이 많았고, 국권 상실 이래 한인들의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다.

1908년에 장백부(長白府)가 설치되었고, 1912년 장백공서(長白公署)로 개칭되었다. 봉천성(奉天省) 관할로 있다가, 1946년 9월 15일 조선족자치현(朝鮮族自治縣)으로 개편되었다. 중국 측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912·15년 장백현에 거주한 한인은 15,000여 명을 헤아렸다.¹³⁾

당시 장백현에서 1913년 9월경부터 한교동사회의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중국어 회화 능력 및 중국관리의와 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한인 이주민들에게 실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속출되었다. 이를 위해 호적·민적 사무와 천연두 예방 접종 등을 취급하고, 운영비는 한인가구의 경제 형편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회비를 징수, 일제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이주한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¹⁴⁾

사실 이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들은 일심단결을 맹세하여 대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다 하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변하지 말자”고 다짐을 약속했다.

1920년 홍범도(洪範圖) 의병부대는 장백현을 근거로 일제에 저항하였고 험준한 산악지대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장백현에는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는 유일우(劉一優), 이창운(李昌云), 김병윤(金秉潤) 등이다. 3월 16일 장백가(長白街)에서는 천도교도 30명이 주동하여 태극기를 선두로 일제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강 건너 혜산진의 일제헌병대가 반격을 해와 이 날은 성공하지 못하

11) 조경한.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論叢, 1933; 창간호:71-72.

참고문헌에서는 27명이 사상했다고 기록하였다.

12) 정상규, 신민식. 앞의 논문. p. 33.

13) 1920년 6월 1일 상해에서 李東白은 안창호에게 “장백현은 奉天省에 있으니, 본국의 혜산진과 마주보고 있고, 柳河縣에서 800여, 局子街에서는 600여, 安東縣에서는 1300리, 吉林省에서는 800리, 威興에서는 500리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약 8,000명”이며, “농산물은 조·보리·감자·콩·기장·옥수수·쌀·인삼·대마·팥·소·말·돼지·닭·삼나무 등이고, 상업은 잡화, 생선과 소금 등 이요, 공업은 토기·목기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주요한, 『안도산전』, 서울:삼중당, 1963:726. 「안창호 일기」 1920년 5월 31일.)

14) 한상도. 「1910년대 장백현을 무대로 한 유일우의 독립운동」, 숭실사학, 2016;36:169.

였다. 다음 날 장백가의 이창운의 집에서 장백현 각구 면장 6명과 기독교도, 민족운동가 등 35명이 모여 독립운동에 관한 밀의¹⁵⁾를 하였다.

신흥군이 거주하고 있던 장백현 17도구에서는 본단(本團)과 지단(支團)을 설치하고,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1920년 1월 당시 임원은 단장 이은향·부장 이태걸·군사부장 이동백·재무부장 윤덕보·참모부장 김찬(金燦)·경찰부장 정삼성(鄭三星)·문사부장 김종기(金宗基)·외교부장 조훈(趙勳)·소집부장 김정익(金鼎益)·공창부장 김진무(金振武) 등이었는데, 대부분 함경남도 출신이었다.

함경남북도 각지에서 군자금과 단원 모집에 주력해 같은 해 7월 이동백이 함경남도 풍산군의 주병록(朱丙祿)과 연락해 풍산 통신지국을 설치하였다. 다시 함경남도 이원군에도 지국을 설치하고 강면하(姜冕夏)·김창렬(金昌烈)·김병기(金秉琦)·이승렬(李承烈)·박계삼(朴桂三)·이이준(李利濬)·조시균(趙是均)·조명균(趙命均)·강석춘(姜錫春) 등을 단원으로 가맹시켰다.

그리고 김병기를 지국장으로, 김창렬을 지국의 서기로, 나머지는 모두 지국의 연락통신원으로 하였다. 이들은 이원군의 제반 상황, 외국 신문·잡지에 게재된 조선독립에 대한 여론, 3·1운동 이후의 일본정부 시정방침과 탄압받은 한국인의 주소·성명, 독립운동가의 주소·성명, 일본경찰의 배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방 민심의 복종 여부 등을 세밀히 탐지해 보고하였다.¹⁶⁾

결국 신흥군의 1911년 이후 북간도 이주 목적은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북청에 대부호였던 한의사 집안 신흥군 일가가 식구들을 이끌고 척박하고 사람 살기 어려운 장백현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국외에서 여론 형성, 독립운동 주요 정보, 비밀정보 연통 등 국내보다는 어느 정도 수월했기에 사실상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북간도 지방 이주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신흥군은 북간도에 이주하면서 만주에 도착하자마자 최운산 장군을 만나려고 했지만 당시 일본군이 심어놓았던 밀정이 넘쳐나는 시기라 최운산 장군 직속부대인 대한군무도독부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봉오동 최운산 장군을 만나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다.

최운산 장군은 1915년 4월에 마침 봉오동 산 중턱을 개간해 독립군 훈련 장소로 연병장을 만들던 중이었다. 신흥군은 훈련 중 다친 병사들을 치료해 주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세균 감염으로 피부가 괴사 되는 ‘봉와직염’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상처가 골아 염증으로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다. 신흥군은 고토받는 병사들을 대항과 황금치자를 뺀아 만든 대항고와 탕약으로 염증과 어혈을 풀어주는 탕을 열 첩 넘게 달여서 먹었다고 한다. 병사들은 빠르게 회복되어 다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신흥군은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에 임하였다. 체력을 다지는 기초 훈련부터 소총을 다루는 고급 훈련과정까지 모두 이수했다. 훗날 대전자령 전투에 활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흥군은 병사들이 훈련단계에만 머물고 직접적으로 일본군과 결전을 벌이지 않는 것에 일부 의문을 품고, 점차 이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1여 년 만에 봉오동을 떠나게 된다.¹⁷⁾

2. 笑來 김중건과의 인연

소래(笑來) 김중건(金重建) 선생은 1889년 12월 6일 함경남도 여흥군 고령면 연동리의 천도교 집안에서 김교화(金敎和)의 장자로 태어났다가 이유(離乳)도 하기 전에 큰 집 김교목(金敎穆)의 양자로 들어가서 양백모인 큰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소래는 부친의 권고로 천도교에 입교한 후 천도교의 교리를 공부해 시작하고, 구국운동의 방편으로 천도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천도교는 1906년 일진회와 결별하고 사회운동, 종교운동에 힘을 실었다.

김중건은 1906년 유년기 때 사서오경(四書五經)은 물론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외가서(外家書)와 아울러 툄스토인, 루소, 다윈 맑스 등 대작가, 철학자를 읽고 선진적인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김교목의 동학(천도교)의 영향을 받아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에 대한 사상을 읽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5) 한민족독립운동사[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2022.12.5.). URL: http://db.history.go.kr/id/hdsr_003_0030_0050_0040

16) 「中國 長白縣內 不逞鮮人 集會의 건」. 『國外情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 26, 高警 第3450號; 秘受 1673號. 左記不逞鮮人等ハ十一月一日長白縣十七道溝王哥洞東坪德李東白方ニ會合シ大韓獨立軍備團ナル結社ヲ組織シタリ而シテ左記氏名中○印ヲ附シタル七名ハ曩ニ解散ヲ命セラレタル上海假政府ヨリ歸來セシ者ニシテ何レモ拳銃ヲ携帯シ事務所ニ結切り居リテ來ル結氷期ヲ待テ鮮內地ニ渡リ各所ヲ攻略スルノ計畫ナリト揚言シツツアリ

17) 한의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 '신흥군'이 바라본 봉오동전투 주역 '최운산' 장군. 한겨레 신문 2022년 7월 30일 자 기사.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9>

1908년 대한매일신보로의 사설 ‘토국민신보(土國民新報)’란 글을 읽고 개명(開明)의 참 뜻을 알고는 우선 해야 할 일이 항일독립운동이라고 결심하고 일대 방향전환을 하기에 이르렀고, 모든 학문과 정력을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서울에 천도교 본부에 두고 활약하겠다고 결심하고 상경하여 교리 선양 활동과 구국 확장 등 조직면에서도 노력하였지만, 선생이 지향하고 있는 濟世정신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천도교 개혁이 절실하였다. 교리설론은 극원철학(極原哲學)에 논설하였으며, 조직활동은 천도교 개혁의 기초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천도교를 설교하기 위해 1910년 천도교 본부에서는 교리를 선양하고 학술만화를 진흥시키며, 기예를 개발하는 동시에 교회 본부 소식을 휘보할 목적으로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를 발간하여, 제1호가 1910년 8월 15일에 출간되고, 매월 15일에 계속하여 발간되었다. 제2호인 9월 15일부터 소래 김중건의 교리부를 통한 극원철학논설이 발표되고 있었는데, 이는 천도교를 극원철학의 장으로 만들어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다.¹⁸⁾

그는 함경북도 영흥으로 돌아가 천도교 청년강당회를 개최하고, 2·1결의단을 비밀결사를 결성하였다. 중앙총부에서 천도교의 교리 강의를 담당하면서 천도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지도층에게는 거부감을 주었고 그는 출교를 당하였다.

그 후 자신이 창안한 극원철학과 원종의 이념을 실현시키면서 독립운동의 사상적 이론이 됨을 확신하고 구이봉(九而峰) 산실에 들어가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3년 1월 1일을 건원(建元)으로 선포함으로써, 원종(元宗)을 창립했다.

김중건은 고향에서 원종(元宗)을 선포한 후 서간도 장백부의 덕수(德水)에 도착하면서 무장단체 대진단(大震團)을 창설하였다. ¹⁹⁾대진단은 3·1운동 이후 안도현 흥도사에서 군사력을 갖춘 무장단체로서 활약하는데 항일독립운동 단체로서 군사훈련을 받게 된 것은 1916년이다. 진단(震團)은 옛 발해의 국호이며, 우리민족의 역사전통의 계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진단은 장백현에 근간을 두고 신흥군과 인연을 맺는다. 신흥군은 김중건을 평생 스승으로 생각하며 따르게 된다. 소래 김중건의 철학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복간도로 망명한 자신의 삶에서 ‘학행일치’를 실제 행할 수 있게 도울 강력한 ‘동지’를 만난 것이었다. 그 뒤 신흥군은 이름을 신흥(申屹)로 개명²⁰⁾하고 원종교 활동에 힘썼다.

김중건은 안도현과 장백부 일대의 이주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부상하고, 주의촌을 건설하였고, 한인자제 주의촌의 농우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원종교는 독시주의(獨是主義)를 관철시키고, 독립운동 세력이나 중국관현의 비호 또한 없었다. 일본경찰, 중국당국, 마적 등의 방해와 위협속에서 원종촌이라는 반일촌락이 형성되고, 독립운동의 기지로 발전하였다.

원종의 급격한 성장을 염려한 일본은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의 헌병암살대를 파견해 장백현 왕가동 지역을 습격했다. 1919년 가을 일본 헌병대가 왕가동 습격 과정에서 신흥군을 잡지 못하자 그 동생인 신흥(申屹)을 무참히 살해하고 압록강에 수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흥(申屹)이 살해당하고 압록강에 수장되는 사건²¹⁾은 신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의술을 펼치던 한의사에서 총을 들고 무장투쟁 항일군으로 거듭나게 된다.

일본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보복으로 1920년 10월 중국 마적을 사주하여 훈춘현 일본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토록 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을 대거 만주로 파병하는 ‘훈춘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독립군들은 산 속 혹은 소만국경지대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독립군 섬멸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대신 일본군은 3~4개월 동안 수많은 한인 마을을 불태우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였으며 한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하는 경신참변을 자행하였다.²²⁾

일본 헌병대의 습격으로 주의촌이 쑥밭이 되고, 동지 김종락(金正洛)은 총살당했다. 김중건은 1920년 천보산(天宝山)에서 체포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 사건으로 대진단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다. 신흥군은 김중건을 대신하

18) 김지용. 『소래 김중건 선생 전기』, 서울:明文堂, 2003:51-52.

19)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98.

20) 정상규, 신민식. 앞의 논문, p. 34.

21)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삼수 신흥군씨는 (중략)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나람포) 왜정 주재소 헌병의 암살대가 越江討伐 暗殺하여 압록강에 수장시켰으니 우리가족의 怨恨과 忿怒之心은 입으로 형언키 難할뿐 아니라 白髮老境인 나의 심중에도 항상 애수롭다.”

22) 東尾和子. 『훈춘사건과 간도출병』, 1977. 히가시노 가즈코(東尾和子)는 장강호 습격사건을 부정하면서 훈춘습격사건은 일본침략군이 간도 및 시베리아 한인 반인단체 포괄적으로 토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 청년단원 200여 명 정도 무장시켜 장백산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다. 한족회, 군비총단, 태극단, 흥업단, 광복단, 군정서 등 수많은 무장부대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각 단체가 하나의 독립군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연합작전, 합동작전 등을 항일전을 지속하였지만, 간도 전체를 무력으로 장악한 일본군과 경찰은 한인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와중에 홍공포증(紅恐怖症)으로 온 교도 전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이상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신흥균은 북간도 화룡현 삼도구 일대 원화동에 자리잡았다.

원화동은 산골이지만 두만강 상류 일대의 한인들의 우심산과 청산령을 넘어 이곳에 와서 장을 보았다.

도시에 가까운 곳이 아니지만 농민들이 집결하는 교동의 중심지였다. 신흥균은 원종 총사를 설치하고 지방법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조직의 재정비의 박차를 가하였다.

원종 총사 조직의 임원으로 대총원원장에 윤대률, 종리사장에 김준, 보성사장 김진, 학무사장에 김홍, 위생원장에 이성지, 등이 임명되었다. 이외에 이춘옥, 조진열, 김병주, 김현목, 황언순, 홍삼봉 등이 집결하였다. 얼마 뒤 원종총사는 다시 내무·외무·재무·학무 등 4개 위원회와 위생원으로 개편되었다. 지방법회 조직은 주무·학무·외무·재무 등으로 구성했다.²³⁾

하지만 상황은 그리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원화동의 원종총사는 일본 영사관에 의해 불령선인단체로 주목, 감시²⁴⁾받다가 1921년 김중건이 체포되고 용정(龍井)영사관에서 중국체류금지처분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가까스로 검거를 모면한 신흥균은 경신참변으로 파괴된 한인 마을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설립했다.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원종교와 대진단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는 14개로, 장백현 지역 전체 53%나 차지했다.²⁵⁾

표 1. 1922~1924년 원종교와 대진단이 세운 학교설립 상황²⁶⁾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용진	연길현 남령	선진	광성군 태양촌	관용	회령촌
경신	북구 강불사	침선	과풍동	의성	화룡현 선화사
애영	북구 세린하	항성	신평동	범영	이도구 행피구
교종	석마동	현신	수신향 개척리	시영	어절재
치정	웅성나자	인성	팔포강 송림촌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의 수준을 높여 만종(萬宗)학원과 건원중학교를 병학하여 농대학원을 설립하였으니 민중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의도였다. 북간도의 민족교육의 상징이었던 명동중학(明東中學)이 폐교를 하게 되니, 연길현의 열 평강별 개척리에 설립하였던 것이다.

또한, 교도들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회적 결사를 중시하여 중우회 및 여성 중우회 등 종교적 성격을 띤 조직운동으로 농민들의 지지기반이 점차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신흥균은 상징적인 인물로 등극하게 된다.²⁷⁾

동만지역에서 좌익단체인 동만청년총동맹의 청년들과 수차에 걸친 사상투쟁 및 논쟁으로 그들로부터 내심 존경을 받게 되지만 견제도 더욱 심해졌다. 개척리의 주의촌에서는 기관지로 ‘새바람’ 잡지를 1년에 9회씩 발간하였는데 동만청년총동맹의 밀계로, 잡지와 저술, 인쇄기, 각종 서적은 압수되고, 김중건을 비롯한 이춘옥·김진·김철림·김일숙·김준·김두운 등 신도 6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해 5월 김중건은 총영사관 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²⁸⁾ “나는 혁명에 관한 이론가이며, 혁명을 주도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송치되고 6명의 신도들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있다가 다시 가을에 경성복심법원에서 공판받았고, 최종 7개월 만에 다시 무죄로 석방되었다.²⁹⁾

‘새바람 사건’ 이후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축출하려면 무력항쟁을 불가피함을 적시하고, 만주에서 공격과 후퇴가 가능한 지역은 북만으로 판단하였다. 북만은 백두산에서

23)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01.

24) 「國外情報 - 中國 長白縣內 不逞鮮人 集會의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26, 高警 第3450號; 秘受 1673號.

25) 정상규, 신민식, 앞의 논문, p. 36.

26)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02.

27) 서광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26:77.

28) 「김소래 정역 3년 구형, 기타 사명은 2년6개월」, 중외일보 1927년 6월 7일자.

29) 정상규, 신민식, 「신흥균(申洪均: 改名 申屹, 申屹)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37.

소련 국경까지 산삼림으로 뺀 노야령 산맥 부근에 팔도하자(八道河子)에다 원종주의촌을 건설하고 어복촌(漁腹村)이라는 이상촌을 만들어 항일운동과 공작분유(工作分有)제도의 형태를 취하였다. 팔도하자(八道河子)에 원종의 중앙본부를 두고 남북으로는 여순·대련에서 흑하를 관통하고 동서로는 수분에서 만주리를 연결하는 동청철도의 중요역에 비밀조직을 두었다. 그리고 두 동서 남북 철도가 만나는 하얼빈에 국제 정세를 직간접으로 파악하는 연락처를 설치하였다.³⁰⁾

3. 대전자령 전투 전개

1920년대 말 30년대 초 만주의 정세는 더욱 급박해지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정부·재계·군부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당시 일본 대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만주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1931년 일본은 침략의 마수를 던지며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중촌 대위(中村大尉)사건, 만보산(만보산 사건), 유조구(柳條溝)철도 폭파 사건 등을 빌미로 만주에 대한 무력 침공을 시작했다.³¹⁾

1929년 김중건은 팔도하자에서 원종교 교도들과 함께 가옥을 짓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유토피아적 이촌향 어복촌을 형성하였다. 중앙부에는 신흥균·조운산·이운·장제민 등 중책을 맡고 있었고, 대대·소대·분대로 나누어 반농반병(半農半兵)의 형태로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³²⁾

북만주 지역에는 백산 지청천이 한국독립군을 통솔하고 경박호 전투에서 승전 후 이동하여 전군이 사도하자(四道河子)에 주둔하고 있었다.

1933년 2월 초 한국독립군 정훈(政訓) 대표 겸 참모장 조경한은 당시 한국독립군 선전공작대 사령관을 역임하여 만주 각지의 흩어져있는 한인들을 규합하여 독립군 모집을 전개하였다. 함경도 흥원 출신인 군의관 강진해(姜鎭海)가 “팔도하자에서 중국인 토지를 광대하게 마련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하면서 그 잉여물은 해마다 저축하여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예비하고 있는 소래 김중건과 일찍부터 안면이

있는 터인데 한번 찾아가 설득하여 일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고 한다. 그리하여 신흥균을 포함한 안태진(安泰振) 등 50여명이 자진해서 한국독립군에 합류한다.

백강 조경한의 회고록에서

이런 좋은 사명을 띠고 올 줄은 정말 꿈 밖이오. 어쩌면 양지심사(兩地心事)라 이렇게도 여합부절(如合不節)로 일치하오. 내 본래 신도들에게 원종 교육을 시켜 왔지만 원종주의자도 자신들의 당면 의무인 항일독립에 대한 군사의 시의를 잊어서는 아니 되오. 그러기에 우리 집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먹고 남은 곡물과 우마까지도 군사금으로 비축해 왔소.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적색분자들의 방해가 너무 극성이니 쉽게는 안 될 듯 하오.

우선 신도들이나 지청천 장군께 가서 군인의 교육과 작전지휘에 절대 복종 하라고 이미 결정·지시하고 오늘 내일 간 곧 발정시키려던 차에 강진해가 똑같은 뜻으로 사명을 전달하니 우연의 일치도 그야말로 이처럼 신기할 수 있겠소. 내일 돌아가실 때 제1진으로 50여 명을 데리고 가시오. 나머지는 계속 출발할 것이오.³³⁾

1932년 2월 15일 용정 공회당에서 창립된 민생단은 간도한인자치와 함께 반공친일 활동을 벌이면서 만주국 수립을 옹호하였다. 공개적인 친일 반공적인 사회정치단체로 출범한 민생단은 149일 만에 단명으로 해체하였는데도 중공 동만특위는 1932년 10월부터 동만 각 현에서 건립된 항일 대오와 유격구내부에 민생단이 침투하여 파괴공작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선인을 상대로 ‘반민생단투쟁’을 발동하였다.

장세운에 의하면 무고한 한인 독립운동가 431명이 밀정 혐의를 받고 희생되었다고 한다.³⁴⁾ 이때, 김중건을 비롯한 어복촌 촌민 6명도 공산주의 세력과 동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다.³⁵⁾

신흥균은 자신의 스승 김중건을 대신해 전투에 참가하여

30) 김지용. 『소래집』 1. 의왕:소래김중건선생기념사업회. 2009:51.

31) 중국 침략 공작 활동을 하던 일본군 대위 중촌(中村)을 장학량군이 총살한 사건이다. 만보산 사건은 만보산 지역의 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대립 관계가 발생한 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반(反)중국 열기를 고취시키며,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았다. 유조구 사건은 일본군이 장학량군으로 변장하고 유조구 철도를 폭파한 사건이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본격적인 만주 무력 침공, 즉 9·18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32) 최봉룡. 『독립과 민족해방의 철학 사상가 김중건』. 서울:역사공간. 2012:119.

33) 조경한. 『재만 독립군과 김중건』. 나라사랑. 1976:24.

34)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투쟁』. 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257.

한·중연합군을 도맡아서 치료하는 등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이후 타격을 받은 일제는 한국독립군을 계속 추격하고 있었다. 이 무렵 왕청현 대전자(나자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19사단(간도임시과견대)가 조선으로 철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³⁶⁾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간도 철수 기사이다.



그림 1. 간도를 떠날 즈음에

간도를떠날 즈음에³⁷⁾

임시 파견 대장의 담화
이번에 관동군과 교대하여 약 1년 3개월 간 치안 유지와 함께, 비적(匪賊) 토벌에 종사하는 간도 임시과견대의 개선(凱旋) 시에 파견대장은 왼쪽과 같이 서술하였다.
우리 간도 임시과견대는 이번 임무를 관동군 부대에게

양보하여 추억이 많은 간도의 땅을 떠나 각 원주지로 귀환하게 되었다. 우리 과견대가 대명(大命)을 봉하여 두만강의 얼음을 밟아 부서뜨려 간도로 출동한 이후로, 이미 1년 3개월이 경과하였다. 되돌아보면, 작년 출동 당시 간도의 땅은 병비(兵匪) 여러 곳에서 반란하여 마죽은 이곳 저곳에 횡행하였으며, 전 간도의 치안은 마치 일대 혼란에 빠질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황군의출동을 보고, 용케 간도의 위기를 구한 이래로, 매우 흥폭한비적(匪賊)의 소탕(掃蕩)에 종사하기를 실로 350회에 이르렀다.

지금 전 간도의 정세를 관망하는데 있어서 폭력(暴戾)한 공비 집단은 지금도 산간의 요지에 반거(蟠居)하며 폭학(暴虐)한 병비의소군은 출몰하는 일 없이 악선전에 광분하거나, 혹은 좀도둑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이 평정심을 되찾아 일반 치안도 점점 회복의 매듭을 짓고 있으며, 만주 건국의 전도가 희망에 차 있는 것은 함께 경축해야 할 일이며, 비적(匪賊)의 준동(靖滄) 상 준동(蠢動)의 破子(破子)로 보임)도 진실로 그들의 단말마의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³⁸⁾

일제가 동만주에서 임무가 끝나 관동군과 교대된 간도임시과견대를 간도임시과견대 훈춘지대로 개편해 관동군과 함께 항일반만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군이었다. 1932년 4월 11일 동만주지역에 출병하여 만주군 군경을 지원해왔으며, 항일군 토벌에 종사해 왔다. 간도임시과견대 병력부대는 좌관급, 위관급, 조장 군조 상등병 등등 계 1580명, 별도로 77명의 군속까지 포함하여 약 1600명 정도 였다고 한다.³⁹⁾

파견목적은 일차적으로 길림군군국 왕덕림 부대 토벌을 위한 것이고, 왕덕림은 소련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부대가 각지로 흩어졌다. 동만지역의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했던 부대는 귀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간도임시과견대는 관동군 소속 간도지구 경비대와 교대할 예정이었다.

한·중연합군은 간도임시과견대가 동서검자(東西臉字)에 이르렀고, 곧 연길현(延吉縣)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곳은 사면이 인적이 드문 약 120 km 되는 길 다른 협곡인데, 마치 '乙'자 모양으로 굽어졌는데, 양쪽은

35) 최봉룡. 『독립과 민족해방의 철학 사상가 김중진』. 서울:역사공간. 2012:141.
36) 이현주. 앞의 글. p. 132-133.
37) 조선일보 1933년 7월 4일 사진.
38) 조선일보 1933년 7월 4일 기사.
39)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17-374.

울창한 산림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적군 공격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한·중 연합군은 1933년 6월에 노아령(老爺嶺)을 넘어 270여 리 산악 행군으로 대전자 북방 4 km 지점인 노모저하(老母豬河에) 당도하여, 나자구로 불리는 대전자령에 도달하였다. 대전자령은 연변에서 연해주로 이어지는 길목의 요충지로, 일본군은 1년 3개월 동안 체류했던 많은 군수물자를 싣고 귀환하는 도중에 근처의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우마차를 징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독립군은 간도임시 파견대에 관한 정보를 심사숙고하여 정탐하였다.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이 빠져나오는 길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훈춘으로 가는 우회로이고, 하나는 백초구를 경유하는 험악한 산악길이었다. 백초구(百草溝)로 이르는 길은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양편에 솟아 있고, 그 위에는 수림이 울창하게 우겨져 행군도 일렬 종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약 40리의 꼬불꼬불한 길이었다. 총사령관 지청천은 적이 빠른 행군으로 목적지로 갈 것으로 생각하여 험악하지만 산악길을 택할 것을 예상하고 일본군이 예상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미를 기습한다는 작전계획도 세워둔 상태였다.⁴⁰⁾

한국독립군의 병력은 약 500명 정도요, 길림구국군 시세영부대는 2000명 정도였다. 중국군은 골짜기 어귀 쪽에 배치하여 돌아서 도망치는 적군을 치게하고, 한국독립군은 골짜기 깊숙한 안쪽에서 적 주력부대와 맞붙게 하였다. 한·중 연합군은 이밖에도 지원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녹림대, 토비 등 지방 무장세력을 일컫는 구세군 등과 협의하여 항일전투에 가담케 하였다.

이후 한·중연합군은 5개의 부대로 나누어 일본군을 공격했는데 제1대(한국독립군), 제2대(시세영부대), 제3대(녹림대), 제4대(한국독립군), 제5대(시세영부대)로 구분하여 역할을 맡게 하였다.⁴¹⁾

한국독립군은 전투의 주력으로서 약 300명이 고개의 가운데 즉 제일 높은 곳에 배치되고, 고개의 입구와 출구에는 독립군 100여 명씩과 구국군이 혼합배치 되었다. 이리하여 한·중연합군은 계곡 양편 산기슭에 구축되어 있는 참호속에 매복, 대기하여 일본군 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한·중연합군은 출발예정일인 28일 아침에 일본군이 매복

지점을 통과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날 아침 폭우가 계속 쏟아져 일본군은 출발을 3일간 연기하고 말았다. 이에 한·중 연합군은 폭우와 굶주림을 무릅쓰며, 적군의 통과를 끈질기게 기다려야만 했다. 하필 장마철이라 매복하고 있는 3일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⁴²⁾

이때 군의관 신흥균(신굴)이 숲속에 자생하는 검은 버섯을 대용식품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한국독립군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선생은 “이것 좀 잡수시오. 가을 장마 끝에 숲속에 돋는 검정버섯인데 중국인들이 요리로 많이 애용하고 요기치풍(療飢治風)도 하지요. 이것 빗물에 씻어서 소금에 범벅했으니 잠시 요기는 되실 겁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경한은 각 부대에 명령하여 그 방법으로 잠시 요기도록 하였다고 한다. 조경한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상 깊었던지 자신이 지은 산문 「대전자대첩」에서 신흥균(신희, 신굴)의 활동을 남겼다.⁴³⁾

「대전자대첩大甸子大捷에 대한 詩」

(중략)

赤鳥黃兔近三匪 해와 달 뜨고 지기 세 차례이건만
苦待天狼奚到遲 기다리는 이리때는 아직도 보이지 않네
饑糧罄竭飢侵肚 바다난 군량은 굶주림을 더하고,
霖沛連綿冷逼肌 장맛비 차가움 뼈 속에 스며든다.
黑藜採取和鹽食 검정버섯 따다가 소금 절여 먹어보니
非獨治風且療饑 요기도 되려니와 치풍도 된다누나
可愛奇方何處出 어여쁘다 이기방 누구에서 나왔느냐.
姓申名屹是軍醫 그는 바로 군의관 신굴(申屹)이다.⁴⁴⁾

간도임시파견군은 6월 28일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져 멎어지기를 기다리다 6월 30일 비가 개이자 나자구(대전자령)로 출발했다. 행렬의 선두는 화물자동차부대, 가운데는 우마차대, 후미에는 자동차 여러 대가 뒤를 따랐다. 당시 간도임시파견군은 1933년 5월에 일부 병력이 조선으로 귀환하고 남아있던 이케다 대좌가 인솔하는 회령주둔 보병 제75연대 소속의 주력 부대 500여 명, 산포대(山砲隊) 본부 및 산포 2개 중대, 함흥주둔 보병 제74연대 보병 3개 중대, 기관총대 1개 중대와 야포 2개 중대, 기병 1개 소대 등으로 이루어졌다.⁴⁵⁾

40) 지복영, 지청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257.

41) 조경한.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抗日記實」. 革命公論. 1934:1(4):71.

42)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상해임시정부」. 중앙일보 1975년 4월 16일자.

43) 조경한. 「대전자대첩-항일무력투쟁의 한 단면사」. 군사. 1980:1:91-93.

44) 국민일보 2020년 4월 25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아무래도 일본 정규군과의 격전이기에 사뭇 다른 전투로 한국독립군은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의 후미부대가 한·중연합군이 매복한 골짜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다음 총공격 개시를 계획했지만, 길림구 국군 부대는 적이 다 들어오기도 전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우마차를 파괴하거나 운송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며 적을 완전히 포위·고립시켰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일본군은 고지를 향하여 사격을 가하며 산발적인 저항을 시도했지만 일사분란한 응전을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무참히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2. 나자구피난민중 1600명 사망으로 흩어짐. 토병의 습격으로 삼십명사상행방불명도 오십명

나자구피난민중 1600명 사망으로 흩어짐.

토병의 습격으로 삼십명사상
행방불명도 오십명.⁴⁵⁾

○○○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나자구 수비대로부터 환송 화물 보호를 하려고 지난 6월 26일 백초구를 출발한 석정 조장 지휘의 27명은 29일 나자구에 도착 30

일에 준비를 하여 가지고 오전 3시에 하차 1백대로 백초구를출발하였는데 일행에는 나자구로부터 피난하는 피난민 약 4천과 피난민의 우마차 5백 대와 같이 7월 1일국자가에 도착하고, 동원 6일 오전 6시 30분에 회령에 귀착하였는데 동대호송 중 전투 상황은 6월 30일 오전 6시 태평구부근에서 약 4천의 반군과 교전하여 이것을 퇴각하고 동일 오후 3시 40분경에 다시 구국군 4백과 교전하여 다시 퇴각하고 동일 오후 3시 40분경에 다시 구국군 4백과 교전하여 다시 퇴각하고 7월 1일 오전 8시에 장가점부근에서 약 3백의 구국군과 교전 1시간을 하여 퇴격하고 2일 오전 노령 부근에서 4,5십 명의 반군과 교전하여 퇴격하고 4일 오후 화가점에서 약 8십명의반군과 교전격퇴하고 3일 오전 6시 화가점서방에서 약 7십명의 반군과 교전 격퇴하였는데,,(중략) 47)

대전자령 계곡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간 일본군의 일부 병력과 화물자동차·우마차 등의 호송대 행렬은 6월 30일 오후에 화피전자(樺皮甸子)동쪽에서 약 400명의 연합군(길림구국군 혹은 한국독립군)과 또다시 교전하였는데, 일본군은 많은 병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날 오후에 또 비가 내리고 날이 저물어 한·중연합군은 이튿날인 7월 1일 아침에 전장을 정리하였다. 이후에도 다른 군소 반만항일부대 이후에도 수차례 습격을 받아서 7월 4일경에 백초구로 도착했다.⁴⁸⁾

대전자령전투는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대격전이었다. 한국독립군은 길림구국군 시세영부대와 연합하여 약 2개 대대 병력의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약 130명 정도가 살상되고 다수의 병력이 사산·도주하는 등 치명적 손상을 받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으며 막대한 군수품들이 한·중연합군에 노획되어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⁴⁹⁾

군수물자 노획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한국독립군 최대승전이 바로 대전자령전투라 할 수 있다. 이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맞서 벌인 항일전투이다. 조경한은 이후 한국독립군 사령부의 대외선전·교섭 및 외교 담당 주요 참모로 활동하

45) 「조선군사령부 발표임을 밝히면서 나자구 피난민 중 1,600명 四散, 土兵의 습격으로 30명 사상, 행방불명도 50명」.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자.

46)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자 신문.

47)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자 기사.

48) 이현주, 앞의 글, p. 138-139.

49)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53-355.

였고, 후일 중요한 회고담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대전자(大甸子) 큰 승리에 부쳐

나라가 망하니 뜻 있는 자, 다투어 망명했네.
이역(異域)에서 군량 모아 양병하니
어렵고도 괴로움 달게 참으며
왜적과 싸우기를 어느덧 십년.
왜적이 만보산 사건(萬寶山 事變)을 조작하여
만주 옛땅을 씹어 삼켰네.
우리 군사 무기를 정돈하여
중국군과 합세하여 왜적과 싸웠네.

북으로 흑룡강, 남으로 백두산, 누빈 전장 종횡 만리.

방정(方正)과 동빈(同賓)싸움, 실패는 있었으나
쌍성과 경박호에 떨친 위세 크기도 하다.

왕청현 대전자 깊은 골짜기에

반총(飯塚)의 이리떼 지난다기에

계유년 6월 동경성에서 정병을 이끌고

불원천리 달려갔네.

(중략) 내 어찌 자리에 앉아 호령만 할 소냐

장비를 갖추고 앞장을 섰네.

배낭 속에 오직 삼일분 양식

손에는 다만 한 자루 총뿐인데

참호 속엔 각다귀 떼 어지럽고

숲속에는 호랑이 울부짖음 그치지 않는다.⁵⁰⁾

백산 조경한 선생이 1936년에 쓴 ‘대전자(大甸子) 큰 승리에 부쳐’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전자령 전투의 실상을 잘 묘사했다고 보여진다.

대전자령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한국독립군은 약 2개월가량 대전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전리품을 시세영부대와 분배한 후 무장을 강화하고 훈련을 재실시하는 등 앞으로의 전투에 힘을 싣고 있었다. 백두산 근처의 안도현 일대에서 활동하는 길림구국군 대리 총사령 오의성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이 대승했다는 전갈을 받고 나자구

부근으로 이동해 왔다.⁵¹⁾

만주에서 독자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온 시세영 부대는 오의성 휘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 점차 내부균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독립군은 이미 전리품 배분문제로 시세영부대와 약간의 분쟁을 치른 상태였다. 오의성 부대가 합류한 이후에는 그의 휘하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서기이면서 후보중 등이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과 항일운동 방향에 대해 이견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⁵²⁾

중국군은 한국독립군을 구국군에 합류하길 바랐고, 독립군이 이를 거절하자 한국독립군이 친일부대라고 중상모략을 했다고 한다.

거기다 양측의 갈등은 민생단(民生團)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다. 백장 조경한은 오의성을 찾아가 항의하고 설득하여 가까스로 독립군은 대부분이 풀려났지만 지청천 장군은 풀어주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신흥군은 휘하 장정들을 지휘하고 동요되지 않게 하였다.

신흥군이 불쑥 나서며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내 나이 50이 되도록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처자를 버리고 만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김소래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불행히 공산도배에게 학살되었고 그분의 평일 유명에 의해 지청천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장군을 유일한 지주(砥柱)로 앙모하고 섬겨 왔는데 또 장군을 잃게 되었으니 내 살아 무엇하랴? 이로써 목숨을 끊겠노라.” 말을 마치자마자 신흥군은 손에 쥐고 있던 생 아편 덩어리를⁵³⁾ 입에 넣더니 아작 아작 씹어 삼켰다. 자그마치 달걀만한 큰 덩어리였다. 주위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졌다. 누군가 비눗물을 먹여 토하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로 따르 뒤에서야 두 시간에 만에 그가 살아났다.⁵⁴⁾

조경한과 동료 장교들은 대책을 세우고, 계속되는 논의

50) 조경한. 「백강시집중보」. 한국종교협의회. 1989:173-176.

51) 이준식, 황민호, 장세운, 염인호, 고건, 김춘선.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 전투』. 서울:역사공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78-79.

52) 지복영, 지청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276-277.

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후보중의 조치는 구국군 내부의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후일 코민테른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좌경적 태도 때문에 항일 지도부를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53) 신흥군은 군의관으로서 아편을 독립군 부상자들 진통제로 당시 썼던 상태라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한의사들은 양비귀를 앵속각이라고 해서 양방의 물핀같이 진통제 처방으로 썼다.

54)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181-182.

끝에 오의성은 지청천을 포함한 한국독립군 장성들을 석방하였다. 오의성이 후보중의 음모임을 알고 오해가 풀린 것이다. 체포·구금 당한 한국독립군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신흥균의 자결사건을 계기로 한국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의 연합전선은 계속 전개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한국독립군은 둔전제를 실시⁵⁵⁾하려 했지만 그 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대전자령 전투 이후 일본군의 독립군 탄압이 가중되는 바람에 독립군 장정 대부분이 중국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뿔뿔이 흩어지고 군대의 조직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내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채로부터 이동자금이 전달됨에 따라 홍진, 지청천, 조경한, 오광선, 공진원, 김창환 등 한국독립군의 중요 간부들과 사병 가운데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지원자 등 40여 명이 북경을 거쳐 중국관내로 이동하였다.⁵⁶⁾

이로써 북만주와 동만주 일대에 1931년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편성되어 중국군과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한국독립군의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동한 청년 34명은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훈련반에 입교하여 1935년 4월에 졸업하였으며, 이후 관내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현지에 남은 독립군들은 일부가 중국에 귀화하였으며, 신희(申屹, 신흥균), 최악(崔岳), 최만취(崔晚翠), 안태진(安泰振) 등은 잔류부대를 이끌고 영안(寧安), 액목, 목릉, 밀산일대의 산림지대에서 지속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⁵⁷⁾

만주에 잔류한 한국독립군 유격 지대(遊擊支隊)의 그 후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는 없다. 견결히 활동하다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항일 부대에 연합하여 한국독립군의 부대 편제를 상실하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의 불리로 인하여 벽지로 은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가운데 최악과 함께 잔류 부대를 이끌고 밀산으로 이동하던 안태진은 적과 교전하던 중 전사하였다고 한다.⁵⁸⁾ 신흥균은 1948년 10월 20일 순국하였다는 것 말고는 확인

된 바가 없다.

Ⅲ. 맺음말

신흥균은 한의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독립운동 방법으로 독립운동 3대 대첩 중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대전자령에선 계곡에서 장마 기간 동안 매복하여 간도임시파견대를 기다리다가 전투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독립군에게 목이(木耳)버섯 찾아 식량으로 대체하게 했다. 그 결과 독립군의 배고픔이 해결되어 며칠 후에 온 간도임시파견대와의 전투에서 대승하게 됐다. 의술을 펼치던 한의사에서 총을 들고 무장투쟁 항일군으로 거듭난 그는 한의학 치료법과 본초지식을 통해 독립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전자령 전투는 독립군 역사상 가장 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전투이기도 하다. 이후 전투의 전리품 문제로 한·중연합군의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한국독립군 300명 정도를 중국측에서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흥균은 중국측 군인들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었기에 필요에 의해 감금되지 않았다. 독립군 참모인 조경환과 군의인 신흥균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300명의 독립군이 해방되었지만 중국측 군대에서는 후환이 두려워 지청천 장군을 가두고 죽일 계획이었다. 이에 신흥균은 분노를 느끼고 항변하면서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청천 장군을 구하기도 했다.⁵⁹⁾

신흥균은 1881년 8월 20일(음)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동상리에서 한성판윤공과 18세손으로 신태검(申泰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당시 조선의 과거시험 잡과에 합격한 한의사 집안으로 대대로 한의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북청 지방 명의로서 수십 년간 한약국을 설립해 운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20여 두락(斗落)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다.⁶⁰⁾

55) 당시 독립군은 군구제(軍區制)와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해 전사가 도래하면 금방 대규모 병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는 평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편으로 만주지역 독립군들에게 만연한 생활방식이었다.

56) 당시 상황에 대해 조경한은 “한국독립군이 진퇴유곡에 빠져있을 무렵 의외의 오광선의 보고를 받고 급전직하 낙양특훈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결정되었고, 오광선·심만호는 군사간부의 연락과 학생모집, 고립된 간부가족의 관내 이주와 각종 예비조달 등의 책임을 지고 동분서치하였다.”라고 회고했다(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212).

57) 한상도, 「在滿 韓國獨立黨과 韓國獨立軍의 中國關內地域 移動」, 사학연구, 1998:55, 56:767-790.

58) 김승학, 『한국 독립사』 (하권), 독립문화사, 1965:182.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는 조국광복 이전에 중국에서 수집한 사료를 토대로 이 책을 편찬.

59) 정상규, 신민석, 앞의 논문, p. 44.

다시 말해서 신흥군 한의사의 활약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다름없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면서까지 그의 항일독립운동의 열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독립군에서 활약한 주요 장령들과 함께 항일 민족운동에 참가하여 한국독립군의 질적·양적 발전에 큰 공헌하였다. 한국독립군이 사실상 해체되었지만 잔류 군대를 이끌고 강인한 지속성과 일관된 불굴의 투쟁 정신을 고양시켜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朝鮮史研究會編. 『朝鮮の歴史』. 東京:三省堂. 1974.
2. 文定昌. 『施政五十二年史』.
3. 梶村秀樹. 『朝鮮史』. 東京:講談社. 1977.
4. 東尾和子. 「훈춘사건과 간도출병」 1977.
5. 정상규, 신민식. 「신흥군(申洪均: 改名 申屹, 申屹)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사학회지. 2021;34(1):31-46.
6. 김승학. 『한국 독립사』 하편. 독립문화사. 1965.
7. 김지용. 『소래집』 1. 의왕:소래김중건선생기념사업회. 2009.
8.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26:59-91.
9. 김지용. 『소래 김중건 선생 전기』. 서울:明文堂. 2003.
10. 류정아.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고찰」. 제29회 한국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8.
11. 신현표. 『월남유서』. 1959.
12.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12(2):110-128.
13.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한국 근대 사회와 문화II』.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14. 신창건.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2007;76:105-139.
15.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서울:아카넷. 2008.
16.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009;13(1):161-183.
17.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89-324.
18.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17-374.
19.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
20. 조경한. 「백강시집증보」. 한국종교협의회. 1989.
21. 조경한. 「대전자대첩-항일무력투쟁의 한 단면사」. 군사. 1980;1:79-93.
22. 조경한.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1933;창간호.
23. 조경한. 「재만 독립군과 김중건」. 나라사랑. 1976;24.
24. 지복영, 지청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2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武裝獨立運動秘史)』.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
26. 최봉룡. 『독립과 민족해방의 철학 사상가 김중건』. 서울:역사공간. 2012.
27. 한상도. 「在滿 韓國獨立黨과 韓國獨立軍의 中國關內地域 移動」. 사학연구. 1998;55, 56:767-790.
28.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29. 「醫生限地醫業入齒營業ノ免許ニ關スル件」, 衛 第3408號, 1940.11.27.
30. 「中國 長白縣內 不逞鮮人 集會의 건」, 『國外情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 26, 高警 第345號; 秘受 1673號.
31.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九」, 『國外情報』, 高警 第94號; 秘受 379號, 一. 大韓獨立軍備團ノ組織(咸鏡南道知事報告要旨) 朝憲機 제169호(1919년 4월 1일).
32. 한민족독립운동사[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2022.12.5.). URL: http://db.history.go.kr/id/hdsr_003_0030_0050_0040
33.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자 기사.
34. 국민일보 2020년 4월 25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35. 「조선군사령부 발표임을 밝히면서 나자구 피난민 중 1,600명 四散, 土兵의 습격으로 30명 사상, 行방불명도 50명」.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자.
36.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상해임시정부」. 중앙일보 1975년 4월 16일자 기사.

60) 신현표. 『월남유서』. 신현표는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쓴 자신과 가족의 일대기다. 초본은 1959년에 작성됐고, 재간본은 1969년에 쓰여졌다. 그동안 보기 편했던 재간본을 주로 봤는데, 알고 보니 초간본이 더 정확하고 독립운동의 결정적 단서가 많이 담겨 있었다.

37. 동아일보 1927년 10월 9일자.
38. 「김소래 징역 3년 구형, 기타 사명은 2년6개월」. 중의일보 1927년 6월 7일자.
39. 「폭탄 던지고 군의로 활약하고...독립운동 속 '한의사' 재조명 KBS 1TV 다큐세상,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 탐구」. 한의신문 2020년 2월 3일자. 이복도민작가 이동현.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